

■ 2022년 한국 경제 전망 - 3% 성장을 위한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목 차

■ 2022년 한국 경제 전망

- 3% 성장을 위한 과제

Executive Summaryi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	l
2. 대외 경제 여건	<u>></u>
3. 2022년 한국 경제 전망()
4. 시시점 ·························11	l

하면 자유롭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주	원	0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 제 연 구	9 실	:	이 부	형	0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오 준	범	연	구	위	원 (2072-6247,jboh19@hri.co.kr)				
			류 승	희	연	Ξ	7	원 (2072-6217, shryu@hri.co.kr)				

Executive Summary

□ 2022년 한국 경제 전망

- 3% 성장을 위한 과제

■ 최근 국내 경제 동향

2021년 2분기 현재 국내 경제는 견조한 수출 회복세와 민간소비의 기술적 반등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 회복세 둔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전기대비 성장률 기준으로 2020년 3분기 2.2%, 4분기 1.1%, 2021년 1분기 1.7%, 2분기 0.8%로 플러스 성장이 이어졌다. 그러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횡보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월 102.8p에서 7~8월에 각각 102.7p, 102.4p로 2개월 연속 하락하였다.

민간 부문의 소비는 코로나19 확산세 및 정부의 재정정책 영향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7월 이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소매판매가 2개월 연속 전기대비 하락했다.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선행지표가 향후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 전망 및 바이러스 재확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한편 2020년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며,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가운데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점증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 대외 경제 여건

2022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 경기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감, 경기 부양 기조 유지,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신흥국 경기도 선진국 수요 회복에 따르는 외수환경 개선 등으로 경기 개선 기대감이 크다. 다만 G2 분쟁 심화와 중국 경제 리스크 확대, 코로나 재확산 및 긴축 발작, 글로벌 공급망 복구지연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여 경기 회복 속도의 차별화가 예상된다. 세계교역 역시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2021년에 비해 증가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유가는 2021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국제 유가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달러화 강세 등의 약세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르는 수요 증가와

일시적인 공급 부족 현상 등이 겹치면서 전년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2022년에는 재고 감소에 따른 공급 확대 등으로 2021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나, 세계 경기 회복세 지속 및 산유국 간 감산 공조 체제 향방의 불확실성 상존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주요국 환율 전망을 살펴보면,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엔화, 유로화는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위안화는 변동성 확대가 전망된다. 미 달러화는 연준(Fed)의 테이퍼링(tapering) 및 조기 금리 인상 기대감 등으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화는 미국과의 통화정책 조정 시차로 약세가 우려되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로 인한 유로화 매입 압력 상승으로 약보합세가 예상되며, 엔화는 신 내각의 아베노믹스 유지 및 달러화 강세로 약세가 전망된다. 위안화는 성장세 둔화에도 고물가,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강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미중 관계 급변, 외환시장에 대한 부동산 및 관련 기업의 부실 영향 전이 등의 내부 리스크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상존한다.

■ 2022년 한국 경제 전망

2022년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나, 2021년에 비해 성장률은 둔화될 전 망이다. 글로벌 주요국의 경기 흐름이 2022년에는 성장세가 약화되어 국내 수출 중 가세가 둔화되고,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 제한 이 해소되어 2020년과 같은 급격한 활동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축소됨을 전제로 한다. 2022년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세가 약화되는 '상고하저'를 예상한다.

민간소비는 2022년 증가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2020년 소비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와 소비 활동 제약 완화 및 소비심리 개선,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중심 정책 등이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노동시장 및 가계 소득 개선세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민간소비가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세 유지되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되면서 민간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건설투자는 2022년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SOC 및 지역균형발전 투자확대와 더불어 신규주택 공급 계획 등에 힘입어 2022년 건설투자는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주택 수주, 착공실적 등 선행지표 개선, 비주거용 건물 투자 개선세등이 민간/건물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기 신도시 보

准 현대경제연구원 🗕

상 및 착공 지연, 설비투자 둔화 등이 건설투자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설비투자는 2022년 세계 경기 확장 흐름이 이어지고 디지털 정보기술(IT) 부문 수요가 지속 확대면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반도체 등IT 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한 반면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기업들의 관련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 강화로 미래형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관련 설비투자가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미·중간 갈등 속 글로 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등의 불확실성 요인과 주요국 긴축전환 등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 등이 설비투자의 일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출은 세계 경기 확장세 지속에 따른 대외수요 확대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코로나19 관련 방역규제 완화(위드코로나 시행 확산) 등의 효과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세계 수출시장의 수입 수요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요국 경기부양책 축소 및 긴축전환 가능성, 개발도상국 중심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 등이 수출 경기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가능성 및 중국 경제·산업정책 방향성 변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국내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른 민간소비확대가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1년 가파르게 상승했던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경기 회복 불확실성 잔존 등이 물가상승률 확대를 제한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고용 부문에서는 2022년 실업률은 하락하고, 신규취업자수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시장 개선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2020년 고용 충격의 기저효과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축소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취업자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 종식 지연 등이 고용시장의 개선세를 제약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 현대경제연구원------iii

	< 2022년 국내 경제 전망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E)						
_	正	연간	상반기	하반가(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걍	l제성장률 (%)	-0.9	3.9	3.6	3.8	3.0	2.7	2.8				
	민간소비 (%)	-5.0	2.4	3.8	3.1	2.8	2.6	2.7				
	건설투자 (%)	-0.4	-1.6	2.9	0.7	3.2	2.3	2.8				
	설비투자 (%)	7.1	12.3	6.0	9.1	1.6	3.9	2.7				
수	· 출증 기율 (%)	-5.5	26.1	18.0	21.8	1.0	0.9	1.0				
소	비자물가 (%)	0.5	1.8	2.3	2.0	1.6	1.5	1.6				
싵	l업률 (%)	4.0	4.5	3.6	4.0	4.1	3.5	3.8				

주: 실적치는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2021년 하반기, 2022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세 안착 및 3%대 성장 달성을 위해 경기 친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K자형 회복에 대한 대응과 대외 돌발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경기 회복세 안착 및 3%대 성장 달성을 위한 경기 친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적극적인 K자형 회복 대응을 통해 경기 회복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국내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중국發 리스크의 국내 전이 차단, 긴축 발작 예방 대책 추진, 글로벌 공급망 복구 지연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과 같은 돌발 리스크 대응이 시급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전략의 추진은 물론 성장 잠재력 제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탄소중립전략 추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엔데믹(endemic)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위드 코로나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해서 중장기적인 경제체질 업그레이드 노력이 필요하다.

🛕 현대경제연구원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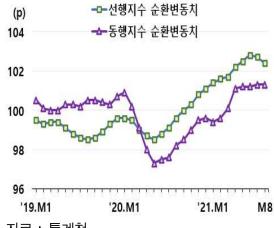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 (국내 경기 불확실성 확대)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내수 충격, 중국발 리스크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 확대
- 2020년 2분기는 견조한 수출 회복세와 민간소비의 기술적 반등으로 플러스 성장
 - · 2021년 2분기 전년동기대바 경제성장률은 건설투자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설비투자, 수출의 증가로 6.0% 기록
 - ·전기대비 경제성장률도 1분기 1.7%에 이어 2분기에도 0.8%을 기록하면서 플러스 성장세 지속
- 단,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횡보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 회복세 둔화 우려가 고조
 - ·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올해 7월과 8월 모두 101.3p 로 횡보
 -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21년 6월 101.2p → 7월 101.3p → 8월 101.3p
 - · 더욱이 향후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지난 2021년 6월 을 고점으로 2개월 연속 하락
 -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212년 6월 102.8p → 7월 102.7p → 8월 102.4p

< 분기 경제성장률 >

(%) ◆ 전기비 ◆ 전년동기비 6.0 6 2.3 2.1 2.6 2.2 1.9 1.1 0.8 -2 -0.2 '19.Q1 '20.Q1 Q3 '21.Q1 Q3 자료 :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순환변동치 >



자료 : 통계청.

2. 대외 경제 여건

- ① 세계 경기 및 교역: 전례 없는 충격에서 회복
- (현황) 2021년 세계 경제는 주요국 경기 부양책 지속, 백신 보급 확대, 경제 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세 지속
- 선진국 경기 : 경기 부양책 지속, 백신 보급 확대 및 경제 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전례없는 충격에서 회복
- 신흥국 경기 :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른 세계 교역 회복으로 경기 회복. 단, 회복 속도는 차별화
- 세계 교역 : 주요국 중심 경기 회복세로 세계 교역도 증가세 전환

< 주요국 및 경제권역별 경제성장률 추이 >

(%)

	구분	2019년			2020년			202	:1년
	T正	2019년	1/4	2/4	3/4	4/4	연간	1/4	2/4
서	세 경제성징률	2.8	-	-	-	-	-3.2	-	-
	선진국	1.6	-	-	-	-	-4.6	-	-
	미 국	2.3	-1.3	-8.9	7.5	1.1	-3.4	1.5	1.6
	유로지역	1.3	-3.6	-11.4	12.4	-0.6	-6.4	-0.3	2.0
	일 본	0.0	-06	-7.9	5.3	2.8	-4.6	-0.9	0.3
	신흥개도국	3.7	-	-	-	-	-2.1	-	-
	중 국	6.0	-6.8	3.2	4.9	6.5	2.3	18.3	7.9
	인 도	4.0	3.0	-24.4	-7.4	0.5	-7.3	1.6	20.1
	브 라 질	1.4	-0.3	-10.9	-3.9	-1.1	-4.1	1.0	12.4
	러 시 아	2.0	1.4	-7.8	-3.5	-1.8	-3.0	-0.7	10.3
	ASEAN-5	4.9	1.5	-8.5	-4.0	-2.5	-3.4	-0.6	8.8
서	예 교역증기율	0.9	-	-	-	-	-8.3	-	-

- 자료1) 연간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0년 10월).
 - 2) 분기 (미국: 상무부 ; 일본: 내각부 ; 유로존: Eurostat ; 중국: 국가통계국 ; 인도: 인도중앙통계기구 ; 브라질: 국립통계원 ; 러시아: 연방 주 통계청).
 - 주1) 분기성장률 (미국: 전기대비연율 ; 일본: 전기대비 ; 유로존: 전기대비 ; 중국: 전년동기대비 ; 인도: 전년동기대비 ; 브리질: 전년동기대비 ; 러시아: 전년동기대비).
 - 2) ASEAN-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포함됨.
 - 3) 세계 교역은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량 기준.

- (전망) 2022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 중심 회복세 지속 기대. 단, G2 분쟁 심화, 중국 경제 리스크 확대, 신흥국 코로나 재확산 및 긴축 발작, 글로벌 공급망 복구 지연, 인플레 등 불확실성 상존
- 선진국 경기 : 미국, 유로존,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기 개선세 지속 전망
 - ·위드 코로나(with-Corona) 기대감, 경기 부양 기조 유지,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 ·단, 유로존 경기 회복 속도는 국가별로 상이할 전망.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신임 총리의 아베노믹스 계승 등으로 경기 개선세 유지 기대
 - ※ 아베노믹스(Abenomics) : 통화공급 확대, 엔화 약세, 적극적 경제성장정책 등으로 디플레이션 탈출을 꾀하려는 성장전략
- 신홍국 경기 : 선진국 수요 회복에 따르는 외수환경 개선 등으로 경기 개선 기대감이 크나, G2 분쟁 심화와 중국 경제 리스크 확대, 코로나 재확산 및 긴축 발작 등 경기 하방 리스크 상존으로 경기 회복 속도 차별화 예상
 - ·특히, 중국은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상반기까지 부동산 및 관련 기업의 동반 부실, 전력 공급난 등이 지속되는 등 내부 리스크는 물론 G2 분쟁 심화 등의 외부 리스크 상존으로 큰 폭의 성장세 둔화 예상
- 세계 교역 :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단, 세계 경제 리스크 상존으로 2021년에 비해 증가 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IMF의 주요국 및 경제권역별 경제성장률 전망 >

(%)

			2021년(E)			2022년(P)	
	구분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1월 전망	4월 전망	7월 전망	1월 전망	4월 전망	7월 전망
세	계 경제성장률	5.5	6.0	6.0	4.2	4.4	4.9
	선진국	4.3	5.1	5.6	3.1	3.6	4.4
	미국	5.1	6.4	7.0	2.5	3.5	4.9
	유로지역	4.2	4.4	4.6	3.6	3.8	4.3
	일본	3.1	3.3	2.8	2.4	2.5	3.0
	신흥개도국	6.3	6.7	6.3	5.0	5.0	5.2
	중국	8.1	8.4	8.1	5.6	5.6	5.7
	인도	11.5	12.5	9.5	6.8	6.9	8.5
	브라질	3.6	3.7	5.3	2.6	2.6	1.9
	러시아	3.0	3.8	4.4	3.9	3.8	3.1
	ASEAN-5	5.2	4.9	4.3	6.0	6.1	6.3
세	계 교역증가율	8.1	8.4	9.7	6.3	6.5	7.0

자료 : IMF.

② 국제 유가 : 2021년 대비 하락이 전망되나,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 (현황) 2021년 국제 유가는 대폭 상승

- 2021년 국제 유가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달러화 강세 등의 약세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르는 수요 증가와 일시적인 공급 부족 현상 등이 겹치면서 전년에 비해 대폭 상승
 - · 전반적으로 볼 때 2021년 국제 유가는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르는 수요 증가 로 2020년에 비해 대폭 상승
 - ·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르는 수요 둔화 우려, 달러화 강세 등의 약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케인 등에 따르는 멕시코만 원유 생산 차질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 (전망) 2022년 국제 유가는 2021년 대비 하락이 기대되나, 여전히 고수준

- 2022년 국제 유가는 재고 감소에 따른 공급 확대 등으로 2021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나, 세계 경기 회복세 지속 및 산유국 간 감산 공조 체제 향방의 불확실성 상존 등으로 고수준을 유지할 전망
 - · 2022년에는 전반적인 공급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2021년에 비해 국제 유가 는 하락할 것으로 판단
 - 다만, 세계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르는 수요 압력 증대, OPEC+ 등 산유국 간 감산 공조 체제 향방의 불확실성 상존 등으로 국제 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WTI 및 Dubai 유가 추이 및 전망 >

(달러/배럴)

구분	2019년	2020I =		2021년(E)			2022년(E)	
一十世	2019년	2020년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WTI	57.0	39.3	62.0	70.0	66.0	62.9	61.7	62.3
Dubai	63.5	42.3	63.5	71.5	67.5	66.0	66.0	66.0

자료: 한국석유공사, Bloomberg, 현대경제연구원.

주1) 2021년 상반기까지는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실적치.

2) 2021년 하반기부터는 Bloomberg,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 현대경제연구원 -----

- ③ 주요국 환율: 달러화 강세, 유로화 약보합세, 엔화 약세. 단 위안화는 변동성 확대에 유의
- (현황) 2021년 중 달러화 강세 전환
- 달러화 : 빠른 경기 회복세, 연준(Fed)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시화 등으로 달러화 강세 기조가 지속
 - · 달러화 지수(주요국 통화대비)는 2020년 1월 8일 89.40p에서 9월 29일 94.35p 까지 상승 후 93p대를 유지
- 기타 주요국 통화 : 유로존의 경기 회복 기대와 안전자산 선호 확대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 및 엔화는 강세
 - ·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은 2020년 1월 0.90유로에서 9월 0.85유로로 하락
 - ·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2020년 1월 109.3엔에서 9월 105.6엔으로 하락
- (전망) 2022년에는 달러화 강세로 타 통화의 약세가 예상. 특히, 중국 위안 화는 변동성 확대 우려
- 달러화 : 연준(Fed) 테이퍼링 종료, 조기 금리 인상 기대감 등으로 강세 전망
- 유로화 : 미국과의 통화정책 조정 시차로 약세가 우려되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로 인한 유로화 매입 압력 상승으로 약보합
- 엔화 : 신 내각의 아베노믹스 유지 및 달러화 강세로 약세
- 위안화 : 성장세 둔화에도 고물가,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강세 유지. 단, 미중 관계 급변, 외환시장에 대한 부동산 및 관련 기업의 부실 영향 전이 등의 내부 리스크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 상존

< 국제투자은행의 주요국 환율 전망 >

구분	2019	2020	2020 2021(E)			2022(E)	
一下正	2019	2020	1~9월 평균	12월말(E)	3월말	6월말	9월말
달러/유로	1.12	1.14	1.20	1.20	1.19	1.20	1.21
엔/달러	109.0	106.8	108.5	108.7	110.4	110.7	110.2
위안/달러	6.902	6.900	6.469	6.468	6.448	6.444	6.553

자료: Bloomberg, 주요 투자은행의 평균 전망치.

주: 전망 시점은 2021년 중순 기준.

3. 2022년 한국 경제 전망

○ 2022년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나, 2021년에 비해 성장률은 둔 화될 전망

- 경제성장률 : 성장세 약화

- ·글로벌 주요국의 경기 흐름이 2022년에는 성장세가 약화되어 국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 제한 해소되어 2020년과 같은 급격한 활동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축소됨을 전제로 함
- ·성장률로 본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세가 약화되는 '상고하 저'가 예상됨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2년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전망 >

	2020년		2021년		2022년(E)		
T E	2020년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경제성장률(%)	-0.9	3.9	3.6	3.8	3.0	2.7	2.8

자료: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1년 하반기, 2022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민간소비 : 증가율 소폭 둔화

- · 2020년 소비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와 소비 활동 제약 완화 및 소비심리 개선,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중심 정책 등이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
- · 다만,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노동시장 및 가계 소득 개선세 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민간소비가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 또한 가계부채 증가세 유지되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되면서 민간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 2022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반기 2.8%, 하반기 2.6%, 연간 2.7%로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2년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

	П	2020I =		2021년		2022년(E)		
T	正	2020년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	-5.0	2.4	3.8	3.1	2.8	2.6	2.7

자료: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1년 하반기, 2022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건설투자 : 회복세 지속

- ·정부의 SOC 및 지역균형발전 투자 확대와 더불어 신규주택 공급 계획 등에 힘입어 2022년 건설투자는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 · 또한, 주택 수주, 착공실적 등 선행지표 개선, 비주거용 건물 투자 개선세 등이 민간/건물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
- · 다만, 3기 신도시 보상 및 착공 지연, 설비투자 둔화 등이 건설투자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
- 2022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3.2%, 하반기 2.3%, 연간 2.8%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2년 건설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

	20201 =		2021년		2022년(E)		
T E	2020년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건설투자 증가율(%)	-0.4	-1.6	2.9	0.7	3.2	2.3	2.8

자료: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1년 하반기, 2022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설비투자 : 증가세 유지

- · 2022년 세계 경제 회복, 디지털 전환 관련 정보기술(IT) 부문 수요 지속 확대, 친환경 전환 관련 투자 확대 등으로 설비투자는 증가세 지속 전망
-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반도체 등 IT 부품 수요 증가 및 공급 부족 현상 이 발생하며 기업의 관련 설비투자 확대 예상
- · 또한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 강화로 전기·수소차 등 미래형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관련 설비투자가 지속 확대될 전망
- · 다만 미·중 갈등 속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 요인 및 주요국 긴축 전환 등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 등이 일부 하방 압력으로 작용
- 2022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1.6%, 하반기 3.9%, 연간 2.7%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2년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

	ы	2020년		2021년		2022년(E)		
Т	正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설비투자	증기율(%)	7.1	12.3	6.0	9.1	1.6	3.9	2.7

자료: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1년 하반기, 2022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수출입 : 사상 최대 수준 유지

- · 2022년 수출은 세계 경기 확장세 지속에 따른 대외수요 확대로 완만한 성 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
- · 다만 2021년 수출이 20%대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2022년 증가폭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 코로나19 관련 방역규제 완화(위드코로나 시행 확산) 등의 효과에 따른 소비심 리 개선으로 세계 수출시장의 수입 수요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 그러나 주요국 경기부양책 축소 및 긴축전환 가능성,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 등이 수출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
- · 또한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중국 경제가 성장세 둔화를 겪을 가능성 및 정책 방향성 변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
- · 2022년 수입증가율은 글로벌 경기 개선으로 확대되나 원자재 가격이 2021 년 대비 다소 진정되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경상수지 : 흑자 규모 축소

- · 2022년 경상수지는 연내 해외여행 재개로 인한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2021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 2022년 경상수지는 상반기 368억 달러, 하반기 411억 달러, 연간 779억 달러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2년 대외거래 전망 >

7 H	00001 4		2021년		2022년(E)			
구 분	2020년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경상수지(억 달러)	753	443	450	893	368	411	779	
무역수지(억 달러)	449	180	207	387	184	217	402	
수출증기율(%)	-5.5	26.1	18.0	21.8	1.0	0.9	1.0	
수입증가율(%)	-7.1	24.1	26.3	25.2	0.9	0.6	0.8	

자료: 실적치는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2021년 하반기, 2022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물가 : 상승폭 축소

- ·국내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가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 그러나 2021년 가파르게 상승했던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공급측 물 가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
- · 또한,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경기 회복 불확실성 잔존 등이 물가상승률 확대를 제한할 가능성도 상존
- ·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1.6%, 하반기 1.5%, 연간 1.6%로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2년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0.5	1.8	2.3	2.0	1.6	1.5	1.6

자료: 실적치는 통계청, 2021년 하반기, 2022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고용 : 실업률 하락

- ·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시장 개선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 · 2020년 고용 충격의 기저효과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축소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취업자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코로나19 종식 지연 등이 고용시장의 개선세를 제약할 가능성도 상존
- · 2022년 실업률은 상반기 4.1%, 하반기 3.5%, 연간 3.8%, 신규 취업자수는 상반기 30만 명, 하반기 18만 명, 연간 24만 명으로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의 2022년 고용 지표 전망>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실업률(%)	4.0	4.5	3.6	4.0	4.1	3.5	3.8
취업자수 증감(만명)	-22	12	43	28	30	18	24

자료: 실적치는 통계청, 2021년 하반기, 2022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2년 한국 경제 전망표 (2021.10) >

7 8		00001 -	2021년			2022년(E)		
	구 분	2020년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무 민 계 정	경제성장률(%)	-0.9	3.9	3.6	3.8	3.0	2.7	2.8
	민간소비(%)	-5.0	2.4	3.8	3.1	2.8	2.6	2.7
	건설투자(%)	-0.4	-1.6	2.9	0.7	3.2	2.3	2.8
	설비투자(%)	7.1	12.3	6.0	9.1	1.6	3.9	2.7
대 외 거 래	경상수지(억 달러)	753	443	450	893	368	411	779
	무역수지(억 달러)	449	180	207	387	184	218	402
	수출증가율 (%)	-5.5	26.1	18.0	21.8	1.0	0.9	1.0
	수입증가율(%)	-7.1	24.1	26.3	25.2	0.9	0.6	0.8
소비자물가상승률(%) 0.5		0.5	1.8	2.3	2.0	1.6	1.5	1.6
실업률(%) 4.0		4.0	4.5	3.6	4.0	4.1	3.5	3.8
취업자수 증감(만 명)		-22	12	43	28	30	18	24

▲ 현대경제연구원 ------10

4. 시사점

- (전망의 요약) 2022년 한국 경제는 2021년에 이어 경기 회복세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적인 잠재 돌발 리스크가 가시화될 경우 경 기 회복세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도 상존
- 2022년에는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국내외 경제 활동 제한 해소, 주요 국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변화, 글로벌 경제의 수급 환경 개선에 따르 는 안정적인 회복세 유지, 미·중 긴장 완화 분위기 지속 등과 같은 궁 정적인 요인으로 국내경제는 2%대 후반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단, 코로나19 재확산 및 돌파 감염 확대로 인한 국내외 위드 코로나 진입과 글로벌 수급 환경 개선 지연,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속도 조정 실패 및 신흥국 긴축 발작, 중국발 금융 불안정 가시화, 미·중 갈등 심화등의 리스크 발생에 따르는 국내경제 회복세 둔화 가능성도 상존
- (시사점: 단기) 경기 회복세 안착 및 3%대 성장 달성을 위해 경기 친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K자형 회복에 대한 대응과 대외 돌발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이 시급
- 첫째, 경기 회복세 안착 및 3%대 성장 달성을 위한 경기 친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계의 소비 여력 확대 및 기업의 투자 심리 회복 에 주력할 필요
 - ·소비 회복세 유지를 위해 고용 안정 및 소득 증대 등 실질구매력 확충과 동시에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비 부양책이 요구
 - •소비 불평등 확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 바우처 지원 확

대, 특정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감세 정책 등을 고려할 필요

- ·기업의 투자 심리 회복의 위해 기업 투자 및 시장 진출입 관련 규제 완화,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육성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
- · 투자 관련 규제 철폐와 규제 품질개선에 노력하고, 규제샌드박스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체감하는 규제수준을 낮출 필요
- 고용시장 안정 및 소득 여건 개선책 마련이 중요
 -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소비 및 투자 활성화를 바탕으로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함
 -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해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소득변동성 완화 및 고용 안정에 주력할 필요

둘째, 적극적인 K자형 회복 대응을 통해 경기 회복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국내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 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및 생존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
 - ·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비대면 소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소외계층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도 모색 해야 함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되, 업종 전환 및 전직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함
-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
 -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신규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 보완이 필요함
 - · 한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차주 단위 DSR 적용 등 부실 가능성을 낮추는 대책이 필요하며,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 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

셋째, 중국發 리스크의 국내 전이 차단, 긴축 발작 예방 대책 추진, 글로벌 공급망 복구 지연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과 같은 돌발 리스크 대응이 시급하다.

- 중국發 리스크의 국내 전이 차단을 위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선제적 대응 책 마련이 필요
 - ·국내 경제와 중국 경제와의 연관성을 높은 만큼 중국의 경기침체, 기업 부채 문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 리스크 요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정부와 민간은 위기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위기 발생시 상황별 신속한 매뉴얼 실행능력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함
 - ·더 나아가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아시아 신흥국들은 중국발 경제충격이 미칠 직접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신흥국의 긴축 발작 예방 대책 추진
 -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 신흥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함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변화하는 대내외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정책 대응을 통해 수출 경기 안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
 - · 미·중간 지속되는 갈등의 영향이 관련 국가들로 확산되고 공급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주요국 내 자국 생산설비 확대, 리쇼어링 지원, 핵심산업 국산화 등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함
 -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한편 주요 핵심산업 기술의 자급력을 위한 투자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이 요구됨
 - · 또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 및 검토가 요구되며 주요 생산기지 국가의 리스크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함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내수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물가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
 - ·물가 안정을 위해 공산품의 경쟁을 촉진하고 제품 가격이 원가 상승분 대비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관리해야 함
 - · 가계후생수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과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시장 독과점 구조를 개선해야 함
- (시사점: 중장기)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전략의 추진은 물론 성장 잠재력 제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탄소중립전략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
- 첫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엔데믹(endemic)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위드 코로나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 안정적인 백신 수급 및 경구치료제 개발 이전까지는 바이러스 재확산 가능성 및 경기 불확실성 상황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생존 지원을 지속
 -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의 유동성 공급 지속 및 고용유지지원금의 원활한 지급 등 생산 및 고용을 담당하는 경제주체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함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코로나19의 경제 적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바이러스 확산성 및 치명률 관리, 백신 접종 및 치료제 개발 등 다각도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위드 코로나 전략 추진
 - ·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해 바이러스 확산 및 치명률 제어 방안, 백신 접종 및 치료제 개발 등에 대한 범국가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함
 - ·위드 코로나 전략을 위해서 안정적인 백신 수급 및 경구치료제 개발이 필 수적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함
- 둘째,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해서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 업그레이 드 노력이 필요하다.

🛕 현대경제연구원------14

-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 등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민생 경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는 노 력이 필요
 - ·시장 활력 제고 및 해외 시장 선점 등을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규제개혁 방향은 사전규제에서 '민간 자율규제 및 사후규제'로 나아가야 함
 - ·제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신산업 및 R&D 투자, 미래 지향 적 산업 정책 추진, 혁신 추구 선호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시급함
- 세계 경제·사회 트렌드 변화를 선도하는 기술, 사업 선점을 위해 기업환경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차세대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미래 핵심산업에 대한 시장 선도력을 갖추고,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경제 가속화에 대응한 인프라 및 기술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
 - · 또한 기업의 혁신, 신사업 발굴을 위한 창업 지원, 규제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확대되어야 함 **대대**

주 원 경제연구실장 (2072-6235, juwon@hri.co.kr) 이부형 동향분석팀장 (2072-6306, leebuh@hri.co.kr) 오준범 연 구 위 원 (2072-6247, jboh19@hri.co.kr) 류승희 연 구 원 (2072-6217, shryu@hri.co.kr)